

2/11/24

설교 제목: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골로새서 3 장 18 절-4 장 1 절

(골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 3: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 3: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은 본서 3 장 1 절부터 4 장 6 절까지 성도들이 추구해야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1 절로 17 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나고, 성도답게 위의 것 곧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언급합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 관계에서 지키며 살아야 할 덕목들입니다.

먼저 부부 간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골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 3:19)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복종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타세스테'는 '아래에'라는 전치사와 '두다' 또는 '놓다'라는 동사가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문자적으로는 '아래에 놓인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인간 관계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거의 폭동 수준의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발적인 복종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3: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사라

(고전 11: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고전 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고전 11: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이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제왕적으로 군림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실천하기 더 힘듭니다.

다음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골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 3:21)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순종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에테'는 '아래에'라는 전치사와 '듣다'라는 동사가 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 듣다'를 뜻하며, 여기서는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의 통제를 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19 절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사용했던 '휘포타세스테' 보다 더 강한 복종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22 절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과 동일한 수준의 단어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 중 제 5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며 그것이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마 15: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대해서는 안됩니다.

'노엽게 하다'는 흥분시키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격노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양육하여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엡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과 공의로 대하시는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상전과 종 간에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골 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 3: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은 헬라어 '퀴리오스'로 '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퀴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땅의 상전들을 '육신의 상전들' 또는 '육신의 주들'이라고 하여 하나님이신
주님과 이 땅의 상전을 구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눈가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에게 눈가림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정직한 행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업을 소명으로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직장 상사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육신의 주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충실한 종이 받을 유업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보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을 현세에 당장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터에서 일할 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전이나 종이나 쌍방 모두 불의를 행한다면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상전은 불의를 행하고도 세상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지위고하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반드시 불의에 대해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을 대하는 상전의 자세을 언급합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합니다.

'공평'은 '동등' 또는 '공정'이라는 뜻입니다.

공평을 베풀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오늘날 직원을 두고 일하는 경영자나 리더들은 하늘에 상전이신 주님이 계심을 늘 염두에 두고, 직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공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성도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간, 부모와 자식 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 각각 어떻게 상대를 대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평을 베풀라고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 사람들 간에 '복종' '순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